국내 증시, 2025 ETF 시장 '폭풍성장'

순자산총액 300조 원 눈앞
1년간 123조5700억 증가
123개 늘어 1058개 기록

한국투자운용, 점유율 8.53%
시장점유율 상승폭 1위 '기염'
신한 등 중위권 운용사 '약진'

삼성·미래에셋운용, 절대 강자
틈새 상품·마케팅 전략 '올인'
올핸 상품 차별화가 성공열쇠



5대 자산운용사 순자산총액 변동 현황

자산운용사 명	2024년		2025년		점유율 변동폭(%p)
	순자산 총액(조)	점유율	순자산 총액(조)	점유율	
삼성자산운용	66.3	38.17%	113.50	38.20%	0.03
미래에셋자산운용	62.6	36.09%	97.48	32.81%	-3.29
한국투자신탁운용	13.1	7.56%	25.35	8.53%	0.97
KB자산운용	13.6	7.82%	21.09	7.10%	-0.72
신한자산운용	5.4	3.13%	12.06	4.06%	0.93

2025년 국내 ETF 시장이 놀라운 성장을 기록했다. 사진은 여의도 전경. 사진=연합뉴스

2025년 국내 ETF 시장이 놀라운 성장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173조5000억 원에서 약 1년 사이 123조5700억 원이 늘어나며 297조1400억 원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5일 글로벌이코노믹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123개의 ETF가 순증하면서 1058개를 기록했고, 순자산총액 또한 300조 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ETF의 성장은 우연이 아니다. 주식처럼 편하게 매매할 수 있으면서도 개별 종목이 아닌 주가 지수를 따르는 패시브 상품이라는 특성이 투자자들에게 어필했다. 운용 보수 등 비용이 공모 펀드보다 저렴하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2019년 코로나 이후 'ETF는 국민 재태크 상품'으로 빠르게 정착했다.

최근 코스피가 전고점을 연신 경신하며 상승장이 지속되자 ETF 시장도 폭발적 성장을 맞이했다. 지난 6월 4일 국내에 ETF가 도입된 지 약 23년 만에 200조 원을 처음 돌파한 데 이어, 약 반 년 만에 100조 원가량 추가로 불어난 셈이다.

이 성장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중위권 운용사들의 약진이다. 한국투자신탁운용(ACE)과 신한자산운용(SOL)은 차별화된 상품 전략으로 점유율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렸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2025년 ETF 시장점유율 상승폭 1위를 기록하며 성장의 중심에 섰다. 전년 대비 점유율이 0.97%포인트 상승하며 8.53%를 기록했는데, 이는 국내 ETF 사업자 28곳 가운데 가장 큰 상승폭이다.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1위를 달성한 것이다. 특히 상위 10개 운용사의 평균 점유율이 오히려 소폭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성장은 더욱 두드러진다.

순자산 증가 속도도 가팔랐다. 2022년 말 3조 원 수준이던 ACE ETF 순자산은 2025년 말 25조 원대로 불어나며 3년 만에 8배 이상 성장했다. 금현물·미국 빅테크·AI 테마 등 신상품과 기존 상품이 고르게 개인투자자 자금을 끌어모았기 때문이다. 특히 ACE KRX금현물 ETF는 2025년 한 해 동안 개인 순매수 1조 원을 넘기며 대표 상품으로 확실히 자리잡았다.

신한자산운용의 'SOL' 브랜드도 2025년 시장 존재감을 크게 키웠다. SOL ETF의 2025년 시장점유율은 4%를 넘어섰으며, 전년 대비 점유율 상승폭은 상위권에 속했다. 개인 자금 유입이 지속되면서, SOL은 대형 운용사 일변도의 ETF 시장에서 확실한 대안 브랜드로 부상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삼성자산운용 'KODEX'와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는 여전히 ETF 시장의 절대 강자 지위를 유지했다. 2025년 말 기준 두 브랜드의 합산 점유율은 71%를 상회하며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순자산 규모 역시 시장 성장의 수혜를 고스란히 받아 크게 증가했다.

다만 점유율 상승폭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KODEX는 점유율은 0.03%포인트 소폭 상승했고, TIGER 점유율은 3.29%포인트(P) 감소했다. 시장 전체 파이가 급격히 커지면서 두 브랜드는 절대 금액 기준으로는 크게 성장했으나, 이미 높은 점유율을 보유한 만큼 추가적인 비중 확대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2025년은 '규모의 성장'은 대형사가, '점유율의 성장'은 중위권 운용사가 주도한 해로 요약된다.

업계의 대표 과제는 장기 투자문화의 정착이다.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에 ETF를 연계하는 작업이 핵심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올해 넥스트레이드에서의 ETF 거래 확대와 기금형 퇴직연금에 ETF 도입을 주목해야 할 사항으로 제시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2025년 ETF 시장은 단순히 규모가 커진 것이 아니라 경쟁 구도 자체가 재편되는 원년이었다"며 "중위권 운용사들이 틈새 상품과 마케팅 전략으로 빠르게 치고 올라오면서, 과거처럼 대형 2사만 보던 시대는 끝났다"고 평가했다.

2025년 ETF 시장은 기록적인 성장의 해였지만, 그 이면에서는 한국투자신탁운용과 신한자산운용처럼 차별화된 상품 전략으로 점유율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린 운용사들이 분명한 존재감을 드러낸 한 해였다. 300조 원 시대를 앞두고 있는 ETF 시장의 미래는 이제 '얼마나 크냐'가 아닌 '얼마나 차별화되어 있는가'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영 기자 kyjangmon@

거래소, 코스닥 '맞춤형 기술특례' 도입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 완료
AI·에너지·우주산업 등 세분화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도입을 위한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AI, 에너지(신재생·ESS), 우주산업 등 국가 핵심기술 분야에 대해 업종 특성을 반영한 기술심사 기준이 신설된다. 거래소는 해당 산업의 성장 단계와 장기간 연구개발 특성을 고려해 기존 기술특례보다 세분화된 질적 심사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AI 분야는 반도체 설계·생산, 모델·애플리케이션 개발, 피지컬 AI 등 밸류체인별로 심사 항목을 구분했다. 에너지 분야는 태양광·풍력·수소 등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차세대 배터리까지 포함해 기술 성숙도와 양산 능력, 성능 차별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우주산업은 인공위성·발사체 제조와 위성 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프로젝트 수행 실적과 기술 완성도, 운용 이력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는다.

아울러 단계적 상장폐지 요건 강화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코스닥 시가총액 기준도 상향된다. 시가총액 150억 원 미만 상태가 30거래일 연속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에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시가총액 기준은 2027년 200억 원, 2028년 300억 원으로 단계적으로 높아질 예정이다.

거래소는 2026년 1분기 중 업종별 기술자문역 제도를 도입해 기술기업 상장 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AI와 우주 등 첨단 산업 분야별 전문가를 자문역으로 위촉해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영 기자 kyjangmon@



한국거래소는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장기영기자

삼성전자·SK하이닉스, 시총 합산 1400조 돌파

SK하이닉스, '500조' 첫 진입
코스피, 3.43%↑·4457.52 마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시가총액이 1400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에 이어 시가총액 '500조 클럽'에 가입했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우선주 포함)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시가총액은 1407.4조 원을 기록했다.

개별 기업별로는 삼성전자가 보통주 817.50조 원, 우선주 83.23조 원으로 합계 900.7조 원의 시총을 기록했다. SK하이닉스는 506.7조 원으로 지난 2일 492.9조 원 대비 하루만에 13.8조 원 증가하며 500조 원 벽을 처음 돌파했다.

두 기업의 시총 합계는 지난달 중순 조정을 거친 후 연말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12월 16일 1059.49조 원까지 하락했던 합산 시총은 26일 1200조 원을 재돌파한 데 이어 연말 1246조 원, 올해 첫 거래일인 2일 1330조 원으로 가속도가 붙었다.

이날 주가도 동반 급등했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7.47% 오른 13만 8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2일 12만 원선을 회복한 지 하루 만에 13만 원을 돌파하며 14만 원 고지를 바라보고 있다. SK하이닉스도 2.81% 상승한 69만 6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장중 한때 70만 원을 터치하며 삼성전자와 함께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다.

반도체주 강세에 힘입어 코스피 지수는 3.43%(147.89포인트) 급등한 4457.52로 마감하며 전날 기록한 종가 및 장중 최고치를 동시에 경신했다. 외국인은 2조1748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

증권가에서는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메모리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대신증권은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강세에 이어 국내 반도체 주요 기업들이 주요 가격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 랠리를 진행 중"이라고 평가했다.

두 기업의 시총 합산 1400조 원 돌파는 한국 증시에서 반도체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정준범 기자 jjb@

iM증권, 비대면 계좌개설 이벤트

신규·휴면 고객 리워드 혜택
2000명에 플랫폼 포인트 지급

iM증권은 2월 26일까지 비대면(스마트지점) 계좌개설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iM증권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는 신규 고객과 휴면 고객을 대상으로 리워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벤트 기간 동안 네이버페이, 토스 등 제휴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고객 가운데 선착순 2000명에게는 1만5000원 상당의 제휴 플랫폼 포인트가 지급된다.

iM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계좌를 개설한 고객 중 선착순 500명에게는 1만5000원 상당의 생활밀착형 기프티콘이 제공된다. 이벤트 참여는 계좌 개설 후 MTS 내 이벤트 상세 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며, 쿠팡이츠, 네이버페이, 다이소, 티빙, CU편의점 등 5종의 기프티콘 가운데 하나를 고객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

거래 수수료 우대 혜택도 마련됐다. 이벤트 대상 고객에게는 국내 주식 온라인 거래 수수료를 0.01%로 우대 적용한다. 선물·옵션 거래의 경우 3개월간 수수료 우대 혜택이 제공되며, 한 번이라도 거래하면 최대 3개월까지 혜택이 추가로 연장된다.

계좌 개설 및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iM증권 MTS 또는 고객만족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기영 기자 kyjangmon@



iM증권은 2월 26일까지 비대면(스마트지점) 계좌개설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iM증권

